



최고의 품질 항상만이 업계의 선두로

완벽한 설비 · 최상의 제품



◀ 송석환
동진기업(주) 회장

동진기업(주)은 1975년 국내 플라스틱 소재의 각종 제품들이 선보이면서 부터 발빠른 행보로 이분야에 진출해, 꾸준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플라스틱 전문기업이다.

1975년 7월 동진플라스틱(주)로 설립, 1995년 7월 동진기업(주)로 상호변경과 함께 플라스틱 용기 생산업계를 선도해 오고 있다.

압출 SHEET 생산에서 부터 성형, 인쇄, 라벨링, 수거, 재활용까지 언제, 어떠한 제품을 요구해도 즉시 양산체제에 들어갈 수 있는 설비는 동진만의 자랑이다.

동진기업(주)의 생산활동의 경우 압출(SHEET)공정에서 생산되어진 SHEET는 다른 성형업체에 판매되거나 수출을 하고, 일부는 회

사가 최고의 기술을 자랑하는 자체 성형공정으로 이동돼, 각종용기를 성형 생산하게 되며, 연간 생산되는 종류만도 600여종에, 수천 만개에 이르는 제품이 생산된다.

이렇게 성형된 제품들은 즉시, 발주 받은 거래선으로 공급되며 인쇄가 필요한 제품들은 동시 6도 인쇄설비를 갖춘 인쇄실로 옮겨져 인쇄를 하고, 스티커부착이 필요한 제품들은 자동 라벨링실로 옮겨져 자동 라벨링되어 제품이 완성되어 진다.

이뿐 아니라 동진기업(주)는 플라스틱을 소재로한 제약포장용 병종류를 생산하는 중공성형기(숏 블로우)를 가동하고 있으며, 보다 원활한 제품 공급을 위하여 추가설치를 위한 본 공장 증설공사가 한창이다.

로터리블로우 설비는 용기 생산량 연간 1억8천 만개 이상을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 유명한 주요 제과 업체에 공급되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은 동진에서 라는 자부심으로 가득찬 설비는 양주군 덕정리에 위치한 제2공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이스크림용 스푼에서부터 포크, 나이프, 향공기 기내식용 컵, 용기 등을 생산하고 있는 동



▲ 양주군 덕정리에 위치한 동진기업(주)의 제2공장

진기업(주) 제2공장에서는 4온스, 6온스, 10온스, 20온스, 25온스, 40온스 사출기 40여대가 24시간 쉼 없이 가동되고 있다.

현재 로봇운영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고 있는 제2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80%를 미국 등지로 수출하고 있으며 식품용기인 생산제품의 특성으로 공장 대부의 철저한 위생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듯 지난 27년간 동종 업계를 선도해오던 동진기업(주)는 더 나아가 제품의 패션화, 고급화를 꾀하고 있으며, 단순한 고급화 패션화가 아닌 기능을 더한 기능성 플라스틱의 디자인개발, 소재개발에 끊임없는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

이에 동진기업(주)는 한차원 높은 제품생산을

위해 적극적인 투자는 물론 기술양상 체제를 도입했다.

2001년 1월 동진기업(주)는 부설 기술연구소 설립, 다양화되고 있는 수요의 욕구를 단순 충족시키는 형태의 연구가 아닌, 먼저 연구하여 준비하고, 수요자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연구활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

연구소 설립 후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로, 한발 더 성큼 앞으로 나서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동진기업(주) 부설 연구소는 10여명의 연구원으로 증원되어 현장과 연구소를 오가며, 테스트와 연구활동을 왕성하게 진행한 결과, 그 동안 자체생산이 어렵던 다층 SHEET 개발을 완료하여, 양산체제를 갖추고 올 초부터 판매에 들어



▲ 동진기업(주) 생산 제품들

간다.

동진기업(주)의 한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밀폐용기를 개발하여, 특허, 실용신안 등을 신청해 놓고 있으며, 위생문제, 내용물에 대한 외적요인차단, 내용물의 원상태 보존 등에 획기적인 기여가 예상된다”며 “특히, 그동안 수입되었던 용기류를 집중 개발해 수입 대체 및 국내 주요식품업체의 원가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고객제일주의, 품질우선주의, 환경경영의 실현을 품질방침으로 설정하여, 품질향상 바탕으로 한 판매 확대전략을 세우고 있는 동진기업(주)은 품질만이 최고의 홍보이며 최고의 원가 절감이라고 설명했다.

동진기업(주)의 송석환 회장은 “품질향상은 생산 단계에서 부터가 아니라 사원들이 출근하기 전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며 중·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전액 지원해 주고 있다.

대학생 자녀에게도 일부가 지원되며, 주택자금의 대여, 진료비 대여, 뿐만 아니라. 미혼 사원의 숙소를 별도로 준비하고, 생활에 불편함을 덜어주며, 결혼시 원하면 아파트 장기무상임대도 검토중이다.

안정된 가정, 생활환경 속에서 어떠한 일에도 열심을 다할 수 있으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근무 환경 속에서 최고의 제품이 생산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동진기업(주) 송석환 회장은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려 하는 것이다.

2001년도는 당초, 3백 만불을 수출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4백만불 이상으로 목표를 두 차례나 재수정하여 늘려 잡았다.

동진기업(주)의 한 관계자는 “품질과 기술을 인정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이 늘고 있고, 바이어들의 방문과 상담이 계속 되고 있어서 올 한해에는 5백만불을 능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하며 이런 추세라면 수년안에 1천만불 수출의 길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액으로 1천만불이지만, 플라스틱 제품 그것도 성형제품이 1천만불 이라면 실제로 40pt 컨테이너 500대의 물량이다. 생산 및 매출의 증가는 수출에서만 늘고있는 것이 아니라 내수시장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가고 있다.

국내 주요 제과, 식품업체 등에 공급되고 있는 동진기업(주)은 매년 20%이상의 매출신장을 기록하고 있다.

2001년도 연간매출은 약300억원이며 2002년도에는 3백6십억으로 20%이상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런 추세로 계속성장에 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동진기업(주)은 송석환 회장의 발로뛰는 기업운영, 앞서가는 선견지명을 가진 해안능력 등이 바탕이 된 것이다.

이런 동진기업(주)에도 1997년 IMF의 영향으로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다. 당시 주거래선의 부도로 인한, 영향이 미친것이다.

이에 송석환 회장은 국내·외 시장개척으로 전 직원들은 급여와 상여금의 일부를 반납해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자신들의 위치에서 맡은바 역할을 다한 결과 1998년에 바로 흑자로 전환시키는 경

영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보이기도 했다.

송석환 회장은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을 통하여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에 반드시 기여해야만 경쟁력의 우위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기술개발에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수 사원들을 선발하여 선진시설과 기술 운영 방법을 보고, 연구, 적용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박람회관람, 현지공장실습 등에 투자를 계속해가고 있다. 또한 국내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사원들의 능력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포장용기는 마케팅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에 눈길을 주고, 손으로 집어들고, 구입하여 사용한 후, 다른 용도로 사용까지 가능한 기능성 플라스틱 포장용기의 개발. 포장용기에 들어있는 식품을 원상태로 최대한 장기까지 보존하고 외적으로 가장 잘 표현되어야 하며, 용기내용물을 취식하고 난 후에도 다시 다른 용도로 사용해도 손색이 없는 재질 및 디자인의 개발, 이런 기능을 갖춘 플라스틱용기가 나오기까지는 끝없는 투자와 연구가 있어야만 탄생되는 것이며, 동진기업(주)는 이러한 이에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으로 동진기업(주)은 투자와 연구를 멈추지 않을 것이며, 멈추지 않는 한 새롭고 다양한 제품들이 우리 앞에 선보여지게 될 것이다.

아낌없는 투자를 주저하지 않는 송석환 회장과 항상 처음의 마음가짐으로 최선을 다하는 임직원이 단결된 모습으로 일사불란하게 맡은바 책임을 다하고 있는 동진기업(주)의 당찬 포부에 기대를 걸어본다. ㄹ

권해진 기자